

제주 민속 포럼

제주 민속의 재도약 현황 진단과 미래 전략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2시 ~ 6시

제주 바다만찬 씨갤러리 2층 대회의실

제주 민속 포럼

제주 민속의 재도약

현황 진단과 미래 전략

제주 민속의 재도약

현황 진단과 미래 전략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등록	14:00~14:20	참석자 등록
개회식	14:20~14:30	인사말: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장)
1부 주제발표	14:30~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내 민속분야 연구·사업 동향 허용호(한국민속학회장)제주 민속분야 연구·사업 동향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제주학연구센터 민속분야 추진 현황 및 2026년 과제 강수경(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휴식	15:40~16:00	자리 정돈
2부 종합토론	16: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좌장: 현승환(제주대학교 명예교수)토론: 좌혜경(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이성훈(전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송정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폐회	17:30~17:40	마무리
	18:00	저녁 식사

주제발표

국내 민속분야 연구·사업 동향

허용호

한국민속학회장

국내 민속 분야 연구·사업 동향

허용호

(한국민속학회장)

목차

- I. 머리말 : 한국민속학의 세분야
- II. 공공민속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연구
- III. 맷음말 : 민속 분야 조사연구 기획을 위한 제언



I. 머리말 : 한국민속학의 세 분야

- 한국민속학의 특성
- 한국민속학의 새 지평
- 공공민속학과 향토민속학
- 한국민속학의 세 분야

한국민속학의 특성

구성원의 다학문성·연구 분야의 다양성 혹은 원심성

한국민속학 형성 초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민속학으로 진입.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구성원의 다학문성, 연구 분야의 다양성 혹은 원심성이 존재.

이는 한국민속학의 간학문성의 가능성을 높임.

폐쇄적인 아카데미즘

다학문성, 다양성 혹은 원심성과 대비되는 특성. 21세기 이후 민속학에서의 문제 현상들이 대부분 대학과 관련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음. '강단민속학의 문제 상황'인 것임.

한국민속학의 새 지평

- 한국민속학의 외래성과 짙은 아카데미즘을 염두에 두고 한국민속학의 재구성이 가능함.
- 한국민속학의 외래성·원심성에 조응하여 폐쇄적인 아카데미즘을 유연화하는 것, 곧 '개방적 아카데미즘'을 지향.
- 이에 따른다면, 한국민속학의 새 지평이 열림. 달리 말한다면, '강단민속학' 이외의 분야가 열림. 그것은 '공공민속학'과 '향토민속학'이라 할 수 있는 분야임. 이 두 분야는 강단민속학과 더불어 실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공공민속학과 향토민속학

- 공공민속학 분야, 특히 국가유산청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취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하게 함.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서의 민속 관련 조사·연구 역시 공공민속학의 구성 요소임. 그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품을 때가 옴. '관속'이라 긍기시 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 이제 한국민속학의 영역 내에서 공식화 하여 논의할 때임.
-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규모와 결과물을 생산하는 향토민속학 분야 역시 한국민속학 차원에서 연대해야 할 시기가 옴. '아무나 민속학', '재야 민속학'으로 펌하하고 도외시했던 태도를 넘어서야 할 필요.

한국민속학의 세 분야

강단민속학

구성주의적 흐름
아카데미즘
대학 중심

공공민속학

실용주의적 지향
제도와 정책의 실천
정부 관련 기관 중심

향토민속학

본질주의적 경향
개인적 열정
문화원, 개인 등

II. 공공민속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연구

1. 민속과 생활문화 조사
2. 민속 관련 사전 편찬
3. 민속 전승 환경 조성과 연구 역량 강화 사업



1. 민속과 생활문화 조사

- 양상
- 특징

양상

- 전국 단위 대규모 민속조사: 권역별 마을신앙 현황 조사(제주, 전라, 경상, 충청, 강원 등).
- 전국 단위 소규모 민속조사: 자유주제 공모.
- 근현대 생활문화와 공간 조사: 한국의 사진관, 젓갈, 탄광촌, 고추판매장, 마늘 손질 공간 등



특징

-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자원 발굴과 축적을 위해 수행하는 기획이 대표적.
- 전통적인 민속 조사를 하지만, 당대의 상황에 주목하는 경향.
- 근현대 형성된 생활문화 조사.
-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도 증대.
- 민속 관련 정부/비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 생활문화, 근현대 이후의 양상 등에 주목.

2. 민속 관련 사전 편찬



- 양상
- 특징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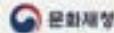
-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봄·여름·가을·겨울) 전 5권(04~06).
-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마을신앙·가정신앙) 전 6권(09~11).
-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민요·판소리) 전 3권(12~13)
- 한국일생의례사전 전 2권(14).
-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극·민속놀이·음악·농악·무용·민화) 전 4권(12~13).
-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전 6권(17~19).
- 한국생업기술사전(농업·어업·상공업) 전 6권(20~22).
- 한국민속사회사전(가족과 친족) 전 2권(17~19).



특징

-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 기반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표.
- 2001년 기획, 2004년부터 20여 년에 걸쳐 진행중인 사업.
- 중요 표제어를 28개 주제로 나눠 2025년 현재 76권(국문 43권, 다국어 33권) 발간.
- 2,250명의 연구자 참여, 표제어 11066개, 원고 11만매 집필, 10만 건의 멀티미디어 자료 생산.
- 국립국악원의 '국악사전' 편찬 작업: 디지털 환경을 염두에 둔 사전 편찬.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적극 활용 시도.
- 표준화, 일원화 등의 '사전 권력'을 해체하려는 논의. 하나의 설명이 아닌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이미 '전통연희사전' 등을 통해 시도했던 관련 연구 양상까지 아우르는 사전 편찬 시도.

3. 민속 전승 환경 조성과 연구 역량 강화 사업



무형유산의 가치 발굴·확산을 위한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계획 추진



- 양상
- 특징

양상

종목가치, 전승환경 조성, 전승체계화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집중

- 청주 밀원지에 대한 지식체계 및 양봉, 한봉, 생산지식 전승환경 조성
- 충주 자연마을 단위의 상여, 상엿집 등 상장례문화 종목 가치 발굴
- 업연초(담배) 생산지식 전승체계화(제천 업연초 재배와 건조 기술)
- 괴산 사람들의 자연환경 인지체계 및 전통마을 입지 전승 체계화(마을 풍수형국과 마을제당)
- 연옥 영혼을 위해 천주교 신자들이 행하는 상장례 노래인 연도 전승환경 조성
- 합덕 지역의 천주교 상장례 의례, 연도의 미래무형유산적 가치 확인과 확산 작업
- 개성에서 전승되는 식문화 및 의례음식 전승체계화
- 정조대왕능행차의 미래무형유산적 가치 발굴·확산
-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미래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특징

- 국가유산청 기획. 2022~2026까지 5년간 100여 종목 조사·연구.
- 민속(종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민속이 적절하게 전승/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
- 지역의 민속 관련 연구자, 공무원, 공공민속학자의 연구 역량 강화에 주목하는 사업.
-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민속에 주목. 해당 민속의 무형유산화 혹은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화 가능성 탐색.
- 근현대에 형성된 종목에도 관심. 유형, 기록, 무형 등의 유산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양상 주목.
- 근현대 무형유산(지역축제), 복합유산, 외래 유산(천주교 장례전통) 등 관련 미래 정책 담론 제기.

III. 맺음말: 민속 분야 조사·연구 기획을 위한 제언

1. 민속의 근현대 이후 양상 주목
2. 공공민속학적 사유와 실천
3. 다중 활용 가능성 높은 거시적 기획



1. 민속의 근현대 이후 양상 주목



- 주목 지점
- 제주 사례

주목 지점

- 새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근래 민속 관련 조사 연구의 동향은 전통적 민속 분야, 시점 등에서 근현대 이후를 주목함. 당대 양상까지 아우르는 접근이 두드러짐.
- 지역축제와 같은 근현대에 형성된 유산에 관심이 증대됨.
- 무형유산 관련 제도에서 전형 개념의 도입에서 보듯이 당대적 변화 양상에 대한 주목 역시 근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흐름.

제주 사례

- 올해 미래무형유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제주 가문잔치와 음식문화'가 주목되는 것도, 근현대 이후 민속의 양상과 관련되기 때문임.
- 1962년 시작된 탐라문화제(근현대 형성 지역축제), 경계의 민속(신구간), 결궁(근현대 외래 기원 농악), 제주도 마당굿 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민속학적 시각 역시 필요함.

2. 공공민속학적 사유와 실천



- 주목 지점
- 제도와 정책에 관한 관심
- 복합유산 담론 실천

주목 지점

- 미래무형유산 관련 사업에서 보듯이, 공공민속학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도 요구됨. 지역 연구 주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관계 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
- 미래무형유산 사업을 통해 제기된 제도와 정책에 관한 관심, 새로운 담론의 제기와 실천 역시 염두에 둘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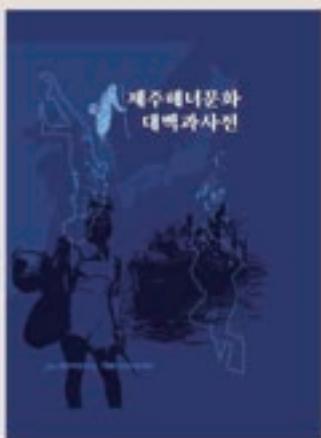
제도와 정책에 관한 관심

- 민속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관심도 요구됨. 제도와 정책의 혁신과 보완을 위한 새로운 담론 제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음.
- 관련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관련 확대 등재를 위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쉬움.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바람신을 맞이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제의'라는 차원에서 확대 등재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영등굿과 그 공동체 모두를 아우르는 확대 등재 논의 필요.
- 현재 한시적으로 확대 등재 신청을 받는 기회 이용해야 함.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복합유산 담론 실천

-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되는 '복합유산' 관련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국내 차원에서도 복합유산 담론 실천에 참여해야 함.
- 자연유산, 세계유산, 기록유산이 무형유산과 어우러지는 몇 안 되는 사례를 가진 제주.
- 지역에서 관련 논의가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쉬움.
- 민속 혹은 무형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경북 안동, 경기 수원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유산 관련 공공민족학적 사유와 실천을 볼 때 더욱 아쉬움이 있음.

3. 다중 활용 가능성 높은 거시적 기획



- 실마리
- 참고 사례
- 적용

실마리

- 거칠게 표현하자면, 제주도 관광을 과잉(overtourism)이라고 보는 시각처럼, '제주 관련 민속 조사·연구 역시 특정 분야에서는 과잉 조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 혹은 단기적 기획 하에 조사·연구가 혼란스럽게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 이제 숨을 고르고 그동안 조사했던 것을 정리하고 재구성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 거시적·장기적 기획을 통해 산출된 성과를 다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때가 온 듯함.

참고 사례

- 국립민속박물관의 사전 편찬 작업임. 앞서 살핀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시리즈 성과는 다중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시리즈를 바탕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한류문화상징사전」(오징어게임, 케데현 등에 조용하는 발빠른 대처), 「한국민속상징사전」(호랑이, 토끼, 용, 뱀 등)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냄.



적용

- '제주무속사전'이라는 방식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음.
- 후속 작업으로 '본풀이사전', '신격사전', '무구사전', '본향당사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중 활용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음.
- 여기에 사전의 권력을 해체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사전 기획.
- 하나의 표준이 아닌, 다양한 견해, 연구 성과까지 아우르는 사전 작업을 시도.
- 이미 이룬 '제주해녀대백과사전' 작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장기적 거시적으로 기획 필요.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제주 민속분야 연구·사업 동향

●
강소전

제주대학교 강사

제주 민속학 연구와 조사사업 동향, 향후 전망

강소전(제주대학교)

[제주 민속학 연구와 조사 사업 동향_ 전개 과정]

• 제주 민속학 연구와 민속조사 사업 의미

- 제주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삶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한 보편성과 고유성을 파악
- 지역 이해, 공동체 담론 파악, 문화유산(문화재) 지정과 관리, 민속 보존과 전승, 민속 활용

• 1980년대까지

- 제주 민속학의 기반 단계로 행정의 견인과 여러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결합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1974) 발간
- 현용준, 진성기, 김영돈 등 자료수집과 학술 연구-무속, 무가, 민요 등 / 강대원의 해녀연구
- 제주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의 발간물

• 1990년대

- 제주 민속학의 본격 형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견인
- 제주도의 「제주의 민속(I ~ V)」(1993~1998), 「제주의 해녀」(1996) 등에서 민속문화 정리

• 2000년대 이후

- 제주 민속학의 전문성 증대와 채록·조사여건의 개선으로 자료 양상의 다양성 확대
- 개별 연구자의 연구자료물, 도내 기관의 발간 지원, 분야별 전국 단위 조사의 증가

[제주 민속학 연구와 조사 사업 동향_ 연구 분야]

- 전통적인 민속학 연구 분야
 - 가족과 친족, 마을과 공동체, 의식주, 세시풍속, 일생의례, 구비전승, 민간신앙, 민속예술 등
- 제주 민속학 연구의 견인 분야
 - 무속의례와 신화(본풀이), 설화, 제주방언, 민요, 생업 등의 분야
 - 육지와 견주어 비교적 제주의 고유성이 두드러진 주제에 관심
-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 되지 않은 분야
 - 가족과 친족, 마을, 의식주,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속예술, 전통놀이 등
 - 물론 분야마다 보고서가 발간되었거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 접근한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민속학 관점으로 연구자를 배출하며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음
- 연구 분야의 관점과 영역의 조정
 - 2003년 유네스코의 5개 무형문화유산영역 선정(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표현물 및 구전 전통 / 공연 예술 /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 전통 공예기술), 특히 전통지식(민속지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

[제주 민속학 연구와 조사 사업 동향_ 연구 주체(학계)]

- 민속학 연구 관련 기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국문학보』, 『백록어문』)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탐라문화』 학술지, 출판물)
 - 제주대학교 박물관(자료수집, 전시, 도록류)
 - 제주학회(1978년부터 지역 연구 표방, 『제주도연구』 학술지)
 - 제주학연구센터(2011년 설립, 아카이브 운영, <제주학 총서> 등 지원 사업)
 - 제주학연구소(『제주학』 기관지 발간, 소규모 연구자모임 지속)
- 민속학 연구의 실제적 양상
 - 민속 관련 학과, 전공, 전공교수, 강좌(전공, 교양) 등 체계적인 기반이 매우 미약함
(근래 약 20년 동안 제주대 일반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의 운영이 도움)
 - 연구 기반의 조직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개별 연구자의 연구 활동인 경우가 많음
 -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전사 자료집, 유관 기관 용역 사업의 보고서 결과물
 - 제주 토박이 연구자 중심 경향(외부인은 거주 여건 및 제주방언 어려움 등의 문제)

[제주 민속학 연구와 조사 사업 동향_ 연구 주체(행정, 기관)]

- 민속 분야 관련 여러 유형·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사항
 - 국가무형 / 국가민속 / 도무형 / 도민속 등(전통공예, 민요, 의례, 전통기술, 기타)
- 민속 분야 관련 각종 문헌 발간 진행
 - 제주도의 「제주의 민속」(총 5권) 발간
 - 세시풍속·통과의례·전승연극(1993) / 생업기술·공예기술(1994) / 설화·민요·속담(1995) / 의생 활·식생활·주생활(1996) / 민간신앙·사회구조(1998)
 -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제주도 하위 행정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의 각 자치지역들이 문화유산 관련 경쟁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간
- 민속 분야 관련 공간 설립
 - 자체 소속 기관으로 여러 박물관, 전시관, 전수관 등도 설립(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 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등)
 - 공간 설립은 연구와 행정의 전문적 분화에 따른 결과이며, 문화관광 산업의 수요·공급과도 밀접한 관련
- 민속 분야 관련 온라인(on-line) 환경 조성, 아카이브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 행정 계정의 SNS, 유튜브 등

[제주 민속학 향후 전망_ 연구자 확보 문제]

- 민속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시급
 - 대학 민속학과, 전공 개설, 민속학 전공교수 등 부재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쉽지 않음
 - 설사 근근이 양성된다 하더라도 학문적 일자리 부족으로 직업적 활동 여건 어려움
 - 연구시스템 결여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연구 활동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의 전향적 인식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보존, 공동체 연대, 문화관광 등을 위한 인력양성 인식 각성
 - 제주대학교: 제주학 활성화, 산학협력 콘텐츠 등을 위한 인력양성 인식 각성
- 민속학 연구 분야별 인력양성 필요
 - 근래 약 20년 동안 의례, 신화, 민요, 생업 등에서 학문후속세대가 그나마 소수 양성됨
 - 연구자 양성 견인을 위한 대학생 교양과목 필요: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4년 동안 <제주의 민속문화> 교양과목 운영
 - 학부 전공과목 확대, 대학원 전공, 학제적 연구 기반 마련 등으로 젊은 신진세대 견인 필요
하나 현 시점 학계의 현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

[제주 민속학 향후 전망_ 민속 조사연구 사업]

- 민속학의 전통적 연구 분야의 변화 혹은 조정
- 유네스코 등 국제적 관점 파악, 민속지식 주목 및 집성, 현대적 삶의 면모를 다룬 민속연구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조사연구 방향
- 행위전승, 물질전승, 언어전승 / 무형 요소와 유형 요소 등이 어우러지는 방향 필요
- 충실한 메타정보의 작성 필요 / 조사보고서, 사진, 음원, 동영상 등을 두루 축적
- 행정과 학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민속연구 활기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제주의 민속(I ~ V)」을 잇는 종합 발간물 요청됨
- 전국 단위 연구기관의 조사(국립무형유산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참여
- 민속연구 자료의 보존과 정리, 실질적 아카이브(archives) 구축
- 기록 자료 분류, 검색 정확성, 검색 편의, 메타정보의 정확성, 민주적 접근성 등이 요구
- 초상권, 지적재산권 같은 법적 요소의 해결방안
- 민속 전문연구자의 기증 컬렉션(collection) 운영: 기증자 예우와 기증 유도(2014년 진성기의 제주대 박물관 기증사례)

[제주 민속학 향후 전망_ 민속 연구와 시민의 향유]

- 민속문화의 이해와 향유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가
- 문화유산을 다시 인식하고 문화관광이 주목 받으면서 자원을 발굴·정비하는 흐름이 나타남
- '마을 만들기' 차원의 활동(오하라 가즈오키(大原一興): 마을은 이미 보물로 가득 차 있다)
- 대중은 문화유산에 대해 축적된 성과를 재편집하거나 재해석을 요구
- '재편집'은 유산의 원형성을 널리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음
- 학술정보에서 벗어나 대중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version)을 기대, 제주 방언과 표준어역의 제공, 문화유산 항목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요약본(summary)을 원함
- '재해석'은 시대적 인식의 영향을 받아 유산의 변형성과 밀접함
- 문화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 콘텐츠는 재해석의 여지 속에서 미래 부가가치 창출 원함.
-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정리되어 사용 편의를 추구함
- 다양한 민속 관련 단행본 발간에 대한 고민 필요
- 학생을 위한 강의교재, 시민을 위한 종합적 입문서, 분야별 대중 도서의 지속적 발간 필요
- 산학협력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자료집 개발

[제주 민속은 제주학의 중심 분야]

- 민속학 연구기반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 민속학 후속세대의 양성이 어려워 연구와 조사 사업 진행도 녹록지 않습니다.
- 민속문화는 향후 미래 세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문화콘텐츠이기도 합니다.
- 여러 사람의 지혜가 거듭 모아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제주학연구센터
민속분야 추진 현황 및
2026년 과제**

●
강수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학연구센터 민속 분야 주요 성과와 2026년 과제

제주학연구센터 강수경

CONTENTS

- ✓ 센터 운영 개요
- ✓ 민속 분야 주요 성과
- ✓ 2026년 추진 과제

센터 운영 개요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주학”이란 선사 아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 제4조(사업)

1. 탐라문화, 역사 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02

센터 운영 개요

제주학연구센터의 인력 현황

▪ 인력 현황

(2025.12. 현재 기준)

센터장	교류 및 정책	제주어	역사	민속	아카이브	행정
1	1	2(3)	2(2)	2	1(1)	2

▪ 민속 분야 인력 및 주요 담당

연도	2012	2019	2020	2023~현재
인원	1명	2명	2명	2명
주요 담당	민속/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	민속

03

민속 분야 주요 성과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성과 통계 현황

(2011~2025.7. 기준)

구분	건수	비고
제주학 총서	77	
제주역사자료 총서	30	2017~2025.9
연구보고서	93	
제주학 학술행사 개최 (세미나, 포럼 포함)	57회	
아카이브 구축	53,041건(자료)	

04

민속 분야 주요 성과

제주학총서

구분	제목	발행년도
민요	제주민요를 지킨 명장들	2012
	제주민요사전	2015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	2017
	해녀노래주석사전	201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2018
신앙(무속)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2015
	제주서사무가집	2018
(신화, 전설 포함)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2017
	제주의 이야기 유산	2017
	99 legends of jeju island	2023

05

민속 분야 주요 성과

제주학총서

구분	제목	발행년도
의식주	제주의 옷, 그리고 제주어_제주 전통 옷의 언어와 민속	2021
	제주 전통 초가 관련 어휘와 민속	2020
일생의례	제주의 산파와 출산: 얘기 내우는 할망에서 조산사까지	2024
세시풍속	제주어로 풀어쓴 제주의 세시풍속1(동부지역)	2021
	제주어로 풀어쓴 제주의 세시풍속2_서귀포시 동부 지역	2023
생업(어로)	제주 잠수의 바다밭	2017
물질문화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2019
	제주도구	2022
	섬의 산물	2016
	제주 물문화 경관 연구	2020

08

민속 분야 주요 성과

제주학총서

구분	제목	발행년도
해녀+마을	제주 중산간 사람들의 언어와 민속	2020
	위미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2021
	귀덕1,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2021
	신천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2022
	일과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2023
	신흥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2024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2025

07

민속 분야 주요 성과

연구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년도
설화	제주도 전설지 현지조사 및 자원화 방안 연구	2015
신화	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2017
무속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2017
신화	제주신화 일반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연구	2018
신화	제주신화<일반신본풀이>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2019
신화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그리스신화의 경우와 비교하여	2020
설화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장소성을 중심으로	2020
인물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2017
인물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2018

08

민속 분야 주요 성과

연구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년도
생업	제주 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 방안 연구	2013
생업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 방안	2014
생업/해안생활	제주 해안마을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조사 연구	2018
생업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2022
해녀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2014
해녀	제주 해녀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5
무형유산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 방안	2013
물질문화/무형유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 연구	2015
유산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내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인식 확산으로	2019
주생활	성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2020

09

민속 분야 주요 성과

연구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년도
기록문화	근대 제주 사진엽서 자료 연구	2018
기록문화	<탐라순력도>의 종합적 연구-지명, 순력, 생활을 중심으로	2023
물질문화	제주 판옥에 관한 연구	2021
물질문화	제주 둘하르방과 석장승(벽수)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2025
의례/공동체	제주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특성-제주시 동(洞) 지역편	2021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2022
	제주도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특성-제주시편	2022
	제주도 마을제의 전승 현황과 특성-서귀포시 동지역 및 서부 지역 편	2023
	제주도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특성-서귀포시 동부 지역	2024
	제주의 마을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안)	2025

10

민속 분야 주요 성과

민속분야 성과의 양상과 특징, 그리고 보완 사항

- 양상과 특징
 - ✓ 의식주, 생업, 일생의례, 구비전승 등 민속분야의 주요 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구비전승 분야 두드러짐.
 - ✓ 최근 5년 수행 과제를 보면, 전수조사를 목표로 특정 분야를 지속사업으로 수행하는 경향. (해녀문화조사/제주마을제)
 - ✓ 기록 및 자료 구축에 중점.

- 보완 사항
 - ✓ 의식주생활, 생업(농업), 일생의례, 중산간 마을 등 특정 분야 조사·연구 미진(등재 유산 항목 편향)
 - 제주의 주요 민속문화 가치 발굴 및 확산 필요
 - ✓ 최근 민속분야의 정책, 조사·연구 트렌드 파악
 - 관련 전문가 및 기관 간 협업 및 교류 기회 확대
 - ✓ 인류무형유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해녀문화에 대한 실증 조사 및 연구 (지속가능성 뒷받침)
 - ✓ 현재 지정된 유산 외 예비목록 작성 및 제주의 다양한 문화자원 발굴 작업

11

2026년 추진 과제

2026년 민속 분야 과제

- ❖ 마을기록화 사업 – 해녀문화조사 (7차년도)
- ❖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화 사업 (2차년도)
- ❖ 제주 중산간 생활사 연구 (신규)
- ❖ 다시 읽는 제주 민속의 이해 (신규)
- ❖ 제주무속기록화 – 신화조사 (신규)
- ❖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4차년도)

❖ 민속 과제 수행 제반 사항

- 담당 인력: 2명
- 사업기간: 2026.1.1.-12.31.
- 2026년 예산(안): 1억 2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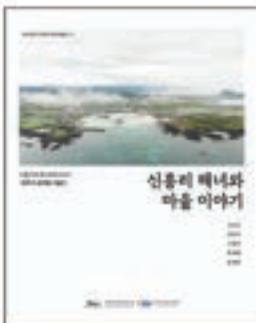
12

2026년 추진 과제

마을기록화 사업-해녀문화조사(7차년도/총10개년)

- ✓ 2026년 대상지: 성산읍 시흥리(7차년도)
- ✓ 배경 및 목적:
 - 해녀의 고령화 및 인류무형유산인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전승을 위한 기록 시급
- ✓ 주요 내용: 마을과 해녀, 해녀문화, 일과 생활, 문화유산
- ✓ 결과물: 책자 발간, 시흥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 세부계획(안)	구분	조사지역	구분	조사지역(안)
	2020(2021)	남원읍 위미2리	2026	성산읍 시흥리
	2021	한림읍 귀덕1·2리	2027	한경면 두모리
	2022	표선면 신천리	2028	애월읍 구엄리
	2023	대정읍 일과1·2리	2029	구좌읍 행원리
	2024	조천읍 신흥리		
	2025	안덕면 사계리		



13

2026년 추진 과제

사라져가는 제주 노동요 기록화 (2차년도/총4개년)

- ✓ 2026년 대상지: 제주시 동부지역(조천읍·구좌읍)
- ✓ 배경 및 목적:
 - 제주 노동요는 농업, 어업, 임업, 가사노동요 등 삶의 생활 전반을 담고 있음
 - 노동 환경의 변화로 사라져가는 노동요 조사 필요
- ✓ 주요 내용: 5개 권역, 채록(구술 녹음, 영상) 및 채보
 -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과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되지 않은 마을 대상

- ✓ 결과물: 책자 발간, 악보집 등

구분	조사 지역
2025	제주시 서부지역(애월읍·한림읍·한경면)
2026	제주시 동부지역(조천읍·구좌읍)
2027	서귀포시 동부지역
2028	서귀포시 서부지역
2029	제주시 동지역·서귀포시 동지역

14

2026년 추진 과제

제주 중산간 생활사 연구 (신규)

- ✓ 2026년 대상지: 제주 서북부 지역
- ✓ 배경 및 목적:
 - 도시 개발과 고령화로 중산간 마을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문화 훼손 및 멸실 위기
 - 중산간 마을의 숨은 문화자원 발굴과 가치 증대
 - 해안과 중산간 마을의 균형있는 조사 및 자료 구축을 통한 제주의 마을과 생활문화 이해
- ✓ 주요 내용: 중산간 마을 자연과 생태환경, 일상생활, 생업문화, 공동체 문화, 풍속 등 현장과 면담 조사 정리
- ✓ 결과물: 책자 발간

- ✓ 세부 계획(안)

구분	권역	조사대상지 예비목록
2026	서북	애월읍 봉성리, 한림읍 금악리, 한경면 저지리
2027	서남	대정읍 신평리, 대정읍 구억리
2028	남동	성산읍 수산리, 성산읍 난산리, 표선면 가시리
2029	북동	구좌읍 덕천리, 구좌읍 송당리

15

2026년 추진 과제

다시 읽는 제주 민속의 이해(신규)

- ✓ 2026년 대상: 제주의 주요 민속문화
- ✓ 배경 및 목적:
 - 제주는 독특한 지형·지질과 지리적 배경, 역사·문화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민속문화 형성
 - 제주 민속의 이해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제주 민속지 발간 및 배포
- ✓ 주요 내용:
 - 제주 사람들의 계절인식, 일상생활, 생업 활동, 신앙, 공동체와 풍속 등
 - 제주 사람들의 일년 삶이 알 수 있는 생활문화 전반을 다룸
- ✓ 결과물: 책자 발간(일반도서)
- ✓ 세부 계획: 1안) 봄, 여름, 가을, 겨울 편으로 나누어 4개년 수행
2안) 주요 항목별 조사·집필

18

2026년 추진 과제

제주 무속기록화- 신화조사(신규)

- ✓ 2026년 대상: 제주지역 심방 본풀이 조사
- ✓ 배경 및 목적:
 - 제주무속신앙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축적해 온 제주문화의 핵심 요소임
 - 일반신, 본향신, 조상신 본풀이를 무속인별로 조사 기록
 - 제주 무속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과 아카이브 제공
- ✓ 주요 내용: 심방이 보유하고 있는 본풀이 채록 및 영상 자료 아카이브
- ✓ 결과물: 자료집 발간 및 아카이브 제공
- ✓ 세부 계획(안)
 - 제주무속기록화 사업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4개년 계획 수립
 - 제주지역 심방 현황 조사
 - 기존 채록된 자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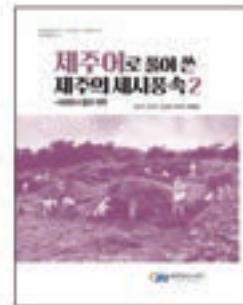
17

2026년 추진 과제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4차년도/총 6개년)

- ✓ 2026년 대상: 제주시 서부지역 단행본 발간
- ✓ 배경 및 목적: 제주지역의 풍속과 그 속에 존재하는 제주어 조사 기록
- ✓ 주요 내용: 4개 권역, 지역별 세시풍속 조사 기록
- ✓ 결과물: 구술자료집, 단행본 발간
- ✓ 세부 계획

구분	조사지역
2021	제주시 동부 지역
2022	서귀포시 동부 지역
2023	서귀포시 서부 지역
2024	제주시 서부 지역
2025	단행본 발간(조사 자료 활용)
2026	단행본 발간(조사 자료 활용)



감사합니다!



